

트렌드 & 스타일

겨울과 봄 사이 트렌치코트 '딱'이네

어떤 스타일이 유행인가

대부분의 여성들은 베이지나 검색 계열의 정통 트렌치 코트를 하나쯤은 갖고 있다. 올해 새로 트렌치 코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여성이라면 조금 '튀는' 색깔로 변신을 시도해 보자.

올 봄 패션의 가장 눈에 띄는 트렌드는 바로 퓨처리즘. 트렌치 코트도 예외는 아니어서 인공적인 느낌을 주는 강한 광택감이 가미된 소재와 볼륨감이 들어간 디자인이 단연 인기다.

컬러는 브라운 등 기본적인 컬러 이외에 산뜻한 봄을 맞아 옐로우, 핑크, 레드 같은 화사한 컬러의 트렌치 코트가 많이 나와 있다.

디자인 면에서는 귀염성을 강조한 퍼프 슬리브, 커다란 버튼, 넓은 벨트 등이 특징이며 소재 면에서는 광택감이 있고 가볍고 바삭한 터치감이 있는 합성소재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짧아진 길이에 컬러풀한 프린트가 더해져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디자인이 눈에 띄며 마치 원피스를 입은 듯한 느낌이 드는 디자인도 인기다.

트렌치 코트 멋지게 입기

트렌치 코트는 어떤 옷이나 잘 어울려 다른 의류에 비해 멋스러운 연출이 쉬운 편이지만 자신의 체형을 잘 고려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길이가 짧은 트렌치 코트는 키가 커 보이는 효과가 있고 라인

반짝반짝 광택 소재 '퓨처리즘' 인기 '무릎위 살짝' 짧은 코트 여성미 한껏

많이 들어간 여성스러운 스타일은 한층 날씬해 보인다. 허리가 굽은 사람은 벨트가 없는 싱글 스타일을 입는 게 좋고, 몸집이 작은 사람이 더블 트렌치 코트를 입을 경우에는 장식용 최대 배제하고 코트 길이에 무릎 위로 살짝 올라간 짧은 것이 좋다.

트렌치 코트를 입을 때는 이너웨어의 색깔에 신경을 써보자. 레드나 와인, 바이올렛 등 화려한 컬러의 트렌치 코트에는 컬러 대비가 되는 이너웨어를 매치시켜 입는 게 좋다. 베이지같은 클래식한 이미지의 트렌치 코트에는 같은 톤의 컬러끼리 매치시키는 톤온톤의 컬러매치를 통해 부드럽고 차분한 이미지를 연출하면 된다.

올해 유행인 길이가 짧은 하프 트렌치 코트를 입을 때는 미니스커트나 무릎선 길이의 심플한 펜슬 스커트를 입어 여성스러움을 강조하는 것도 포인트. 또 미니스커트에 화려한 패션 스타킹과 하이힐을 매치시키면 색다른 멋을 풍길 수 있다.

트렌치 코트의 코디법중 중요한 게 바로 V존 연출. 옷 윗부분의 V존을 통해 이너웨어가 보이기 때문에 어떤 색깔의 의상을 입느냐에 따라 다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보통 심플하고 깨끗한 화이트 셔츠나 목까지 올라오는 얇은 터틀넥 스웨터를 입는 게 가장 기본.

네이비색 트렌치 코트를 입을 때 화이트 셔츠나 화이트 바탕에 네이비 컬러의 줄무늬가 들어간 셔츠를 매치시키는 등 트렌치 코트의 컬러와 같은 스트라이프가 들어간 셔츠를 이너웨어로 선택하면 훨씬 이지적이고 세련돼 보인다.

또 스카프도 포인트를 주면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더욱 돋보인다. 올 시즌 리본이 유행인 점을 감안, 스카프를 리본처럼 묶어주면 훨씬 멋스러운 효과를 낼 수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꽃샘 추위가 찾아오는 번덕스러운 봄날씨엔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인기 좋은 아이템이 바로 트렌치 코트. 일명 '바바리'로 불리는 트렌치 코트는 어느 옷이나 잘 어울리고 보온효과도 높아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쌀쌀한 요즘 같은 때 적합한 아이템이다.

(주)신원 디자인실의 도움으로 올 봄 트렌치 코트 유행 경향과 코디법 등에 대해 알아본다.



버리자니 아깝고, 다시 입을 생각은 없고, 한 두번 입고 옷장 속에 걸어둔 옷을 위탁판매하는 알뜰 여성들이 늘고 있다. /위탁판매사 jrwi@kwangju.co.kr

“장롱속 옷 팔아드립니다”

‘의류 위탁판매’ 알뜰파 여성들에 인기

대부분 여성들의 옷장에는 한두번 입고 그냥 방치해둔 옷들이 꽤 많다. 옷을 구입할 당시에는 마음에 들었지만 금방 싫증이 나기도 하고, 세월이 흐를수록 옷에서 산 가격에 비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 번도 입지 않고 쌓아두는 경우도 있다.

입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버리기에는 왠지 아까운 의류들을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 최근 알뜰파 여성들이 중심으로 위탁판매에 인기를 모으고 있다.

“딱 한번 입은 옷이거든요. 예쁘게 입으세요. 가격은 2만원” “선물 받았는데 취향이 맞지 않아 한번도 입지 않았어요. 가격 1만원” “전대 후문에 위치한 의류가게 ‘뽕강경주’ 매장 옷걸이에 걸려 있는 옷들은 고객들이 ‘팔아 달라며’ 맡겨 둔 것들이다. 위탁 판매를 요청하는 고객들은 자신이 맡긴 옷의 간단한 특성과 함께 구입년월일, 구입 당시 가격, 현재 받고 싶은 금액 등을 적은 태그를 달아 둔다.

구제나 헌옷을 직접 판매하던 주인 박설아(32)씨는 가게를 찾은 한 손님으로부터 “입지 않고 쌓아둔 자신의 옷을 팔아줄 수 없나?”는 제안을 받고 위탁 판매를 시작했다.

박씨는 50%의 수수료를 받고 얼룩이 심하게 진 옷이나 지나치게 후술근한 옷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옷을 대신 판매해 준다. 한번 맡긴 옷의 판매 기간은 3개월 정도. 계절에 맞는 옷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객들 입장에서선 입지 않는 옷들을 처분, 저지분한 옷장을 정리할 수 있어서 좋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판매 대금도 챙길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고객 신다미(32·광주시 각학동)씨는 “선물 받은 옷이 취향이 맞지 않아 그냥 쌓아두다 위탁판매를 부탁했다”며 “큰돈을 받지는 못했지만 청바지와 조끼를 판매해 1만 5천원을 벌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패션업계 “예비신랑 잡아라”

남성예복 마케팅...신혼여행·혼수가전 선물

결혼철을 앞두고 패션업계가 남성예복 수요를 잡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코오롱패션의 맨스타 피렌체는 다름날 말까지 남성 예복 구매 고객 중 5명을 뽑아 물디브로 허니문을 보내 주고 상품권과 코엔터링 림프 2종 세트 등을 준다.

를 맞는 날에는 축하 와인을 선물한다.

캠브리지는 7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청정장 300매를 무료로 만들어주고 구매 고객이 결혼 1주년

LG패션 마에스트로와 닥스는 신사 예복을 사는 고객 중 1명에게 42인치 LCD TV와 대형 냉장고 등 혼수가전 10여종 일체를 증정하며 제일모직 로가티스는 이달 말까지 100만원 이상 구입하는 고객에게 섀시 나이트 여행가방을,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대령양 여행용세트를 준다.

대인동삼일부동산
☎ (062)222-1140, 5210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LCE타워(주)
☎ (062)972-8004, 010-7154-6986
첨단지구 LCE타워
최대한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가공인중개사
☎ (062)234-0216
상가건물 매매
*중정동 대지 78평 5800만 24/1,700만 21억
*중정동 대지 45평 4500만 14/650만 15억

한일지도판매(주)
☎ (062)529-1409
2007 최신간지판도
책 판매개시!!
타사제품 미기득점 부문

호성공인중개사
☎ (062)521-6024
대지매매
(교회, 원·투룸부지)
*북구 양산지구 대지 1,000평, 500평 3면도로전 평당 135만

토우드공인중개사
☎ (062)384-1995
토지
*산하동 800평 당 2000만 평당 2400만
*전곡동 3000평 당 1400만 평당 4200만

다우공인중개사
☎ (062)523-8114
오봉리 전원주택지
(평당 30만)
*남양 현대자동차 출고장 건너편 오봉리(뉴시티) 바로 옆 210~360평 총8필지중 4필지 매각

법원경매
지지경매컨설팅(주)
(광주법원 입찰법정 건너편)
☎ 062-226-0047
현장조사, 권리분석, 수의분석, 입찰신청, 대출안 내, 명도까지 원스톱서비스로 확실한 제테크